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



◎ 이경원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음악은 대개 음악(미)학을 통해 형이상학적으로 설명된다. 역사적으로 서양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분석 방법이 사용되는데 스타일(Stylistic Analysis)이나 기능(functional analysis), 형식(Formal Analysis)이나 구조(Structure Analysis), 악구-구조(Phrase-structure Analysis)를 비교하고, 언어학적(linguistic Analysis), 쉐커식(Schenkerian Analysis), 주제과정(Thematic Process Analysis) 분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분석들을 기초로 하여 좀더 구체적인 물리적 특징(Physical features)을 분석하고 대략의 음악역사를 이해한 후 성경적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인 음악의 특징을 보자. 음악을 듣는 동안 다양한 메시지와 감정이 전달되고 아름답다고 느끼며 상상을 할 수 있다. 음악 전공자라면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을 생각하며 어쩌면 저렇게 따듯한 화음, 저렇게 살아있는 리듬을 엮었는지 놀라운 창조성에 동의하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더욱 간과되기 쉬운 영역은 이런 예술적 심미성 이면에 음악은 수학과 물리, 공학 등과 함께 상호 관련을 맺는 학문이고 미술이나 문학, 건축과 기계문명 등과 같이 역사적 산물이다.

단선율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 Gregorian chant나 다성부(polyphony) 음악을 생각해보자. 지금도 가톨릭 성당에서 사용되고 있고, 손으로 기록된 음악이며, 역사적으로는 낭만, 고전, 바로크를 거슬러 올라 르네상스와 중세와 맞닿아 있다. 또한 천정이 높은 고딕 건축과 그림의 성당이나 수도원에서 연주된 종교 곡으로 당시의 삶, 문화와 깊게 연관된다. 기보(notation)의 변천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단성부(Monophony)에서 다성부(Polyphony)로 오는 음악 기록을 보여주며, 대위(counter point) 혹은 화성(harmony)이라는 음악의 내용을 제공한다. 이렇게 내려오는 기록들에서 공통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원칙은 음악적 원리(이론)로 정



리 되어 서양음악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설명하는 틀이 된다.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뽑으라고 하면 “조성(tonality)”과 “무조성(atonality)”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듣는 곡은 대개 조성이 있는 곡이고, 20세기 후반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무조성이나 비조성의 음악이 선호되어왔다. 조성 음악의 확장 무조 음악, 너무도 다른 이 두 음악간에도 위에 언급한대로 물리적 원리가 통용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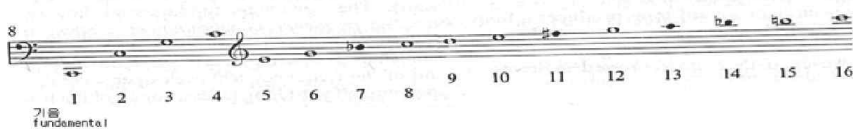


음악의 발전 혹은 방향성을 보는 시각은 매우 차이가 난다.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현상을 우연이나 자연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윤리나 가치가 음악과 무관한 일이 생기고 음악을 인생의 목표나 목적으로 삼는 이상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소리’나 ‘음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환경의 일부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 존재하는 DNA처럼 ‘소리와 음향’은 음악의 DNA와 같아 지금의 음악 역사가 그 속에서 태동했다.

배음: 음악의 씨앗

천장이 높은 성당에서 울리는 화음 없는 Gregorian Chant를 상상해보자. 곡이 끝나고 조용히 기다리면 마치, 마주보는 두 거울 안에 끝없이 펼쳐지는 거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울리는 공명(resonance)을 들을 수 있다. 얼듯 들으면 한음으로 들리지만, 실은 한음(pure tone)이 아니라 여러 음들의 조합(기음과 배음의 조합)이다. 조용한 장소이고 울림(=공명)이 충분하다면 ‘도’음으로 끝난 저음 ‘도’ 외에 한 옥타브 위의 ‘도’ 그 위의 ‘솔’ ‘미’ 등의 잔향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기계를 사용해 들어보면 주로 사용하는 16개를 포함하는 무한대의 음이 함께 울리는 현상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칭 배음(overtones)이라 부른다. 현악기의 하모닉스, 관악기의 overblowing의 형태를 통해 배음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즉, 한 포지션(관악기에서는 같은 운지)에서 여러 음(한 두 옥타브 위의 음이나 5도 위, 단 7도 위, 3도 위의 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배음에 있는 음만이 가능하다. 이 배음이 왜 음악적으로 중요하고 또 기독교적으로 중요한지 살펴보자.

배음 모든 음은 두 물체의 마찰과 공기의 진동으로 생산되며, 물체의 길이(현이던 공기 기둥이던)가 음 높이를, 재료와 배음이 음색을 결정한다. 다음은 첼로 C 현을 활로 그었을 때 울리는 최저음과 그 배음들이다.





배음의 특징

한음에 발생하는 배음끼리의 간격을 보면 밑의 간격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며 16개의 배음 안에는 3화음(1^3^5^=도^미^솔)을 이루는 음들의 수가 우세하고 그 중에서도 1음(=근음)-5개)5음-3개)3음-2개의 우선 순위를 가진다(나머지는 1개씩). 이런 상태를 우리는 첼로의 최저음 C로 인식 한다. 다음 글에서 이 배음간격과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음악역사-배음으로부터

1.아래 악보는 최초의 다성음악인 오르가눔(organum,9세기)이다. 원 성부 Vox principalis 위에 완전 5도의 Vox organalis 성부가 더해지고 각 성부가 옥타브 위에서 병행된다. 이처럼 배음2,3,4번 음이 최초의 다성부 음악에 음정으로 쓰인 것으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의 배음 참조

b) Tu patris sempiternus es filius (four voices)

2. 아래 악보는 3도 간격(최저음으로부터 중상성부간 3도 음정; 그 다음 배음 5번)의 음정이 협화 음정으로 안정적으로 쓰인 14세기 기욤 드 마쇼의 미사곡이다. 이를 아르스 노바(Ars Nova=New Music)라고 한다. 이를 시작으로 음악역사에는 3화음(Tertial harmony; 3도씩 두 번 쌓아 만드는 화음)이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위의 배음 번호 참조

3. 15세기 영국 작곡가 던스터블의 작품 이후로 20세기를 지나 현재도 사용하는 3화음(배음~6)뿐 아니라 7화음(배음~7), 후에는 9화음(배음~9)과 11화음(배음~11)과 그 이상의 화음도 전부 배음에 내포되어 있다. 즉, 7화음이 도입되는 16세기 엄격 대위법의 시기와 그 확장 17-8세기 바로크 대위법, 그리고 18-19세기의 화성법과 반음계화성으로의 발전이 꼭 이 모양을 갖는다. 우리가 늘 듣는 음악 뿐만 아니라 드뷔시와 같은 인상주의 음악가들이 주로 사용한 전음음계 whole tone scale(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계로 배음8~11음), 20~21세기 온음을 반음이 아닌 1/4(Quarter tone))로 쪼개어 쓰는 음악(16번째 배음 이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적 출처를 제공하는 기초는 바로 이 배음이다. 곡 관련 소개는 다음 글에서 언급될 것이다.

배음의 기독교적 의미

음악의 역사는 이미 그 씨앗인 배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지는 기독교적 의미는 무엇일까? 공교육은 배음을 자연현상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이해한다. “저 하늘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기와 공간은 배음이 존재할 수 있는 음악 환경이다. 비 기독교인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현상을 높이고, 역행해서 사용하거나, 자연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작곡하고 연주한다. 반면 기독교인은 음향의 원칙을 발견하고 건강한 음악세계가 되도록 관리하며 음악으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그 분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다음 글에서는 배음과 연주 효과의 관계 음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ㅅ**

- 1) Gregorian chant 대략 5, 6세기경부터 14에 걸쳐 만들어지고 쓰여진 로마가톨릭교회의 단성부(monophony) 전례음악으로 교황 그레고리 1세(590-604)에 의해 수집되어 그 이름으로 명명됨
- 2) 12세기 노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2성부 이상 여러 성부의 곡
- 3) 현악기는 손가락을 눌러 내는 정상적인 소리 외에 현의 특정지점에 가볍게 손가락을 대서 배음에 해당하는 잉여의 소리를 만들 수 있다.
- 4) 관악기 연주자들은 자신만의 호흡 조절과 취구방법(embouchure)을 통해 기음관 길이에서 낼 수 있는 최저음) 외에 위의 배음들을 더 찾아 볼수 있다.
- 5) 9세기 최초의 다성음악(polyphony)에 대해 언급한 이문서 Musica Enchiriacs (Musical handbook)에 실린 병행 오르가눔(parallel organum) 악보
- 6) 완전화음(1,4,5,8)의 빈듯한 음정을 주로 사용했던 이전스타일에서 Ars nova는 좀더 유려한 선율과 3도음정을 자주 사용



이경원 한양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DMA)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및 대학원,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필라델피아 St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챔버 코치를 거쳐 현재 하늘소리 홈스쿨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원제: Sound Stewardship)』 (DCTY)이 있다.

